

국회 예산 계수조정 첫날부터 '파행'

재수정안 절충 실패 민주 불참...반쪽 심의 한 "강행 처리" 입장 불구 법정 시한 넘길 듯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부터 파행,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전망이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83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나 민주당의 불참함에 따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이 참여, 반쪽짜리 심의를 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날 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는 계수조정소위에 앞서 간사협의를 갖고 민주당의 경제위기상황을 반영한 재수정예산안 제출 요구 등을 놓고 절충했으나 이견이 커 실패했다.

내년도 나라살림을 사실상 확정하는 계수조정소위가 첫날부터 파행함에 따라 예산안은 법정 시한(2일)을 지키기는 커녕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합의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이따라 출연 민주당의 보이콧과 관련, "경제위기에는 아랑곳없이 어떻게든 예산안 처리를 방해만 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며 이런 식으

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는 9일까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말해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금주 내에 마무리 짓고 내주 초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지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라며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인 만큼 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토목사업,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위주 예산은 일본의 장기불황을 가져온 실패한 정책을 따라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층과 거액 자산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 예산, 서민 무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 간 헝거투기가 치열해지면서 이번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날치기와 몸싸움 등 구태가 재연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간에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날치기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구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밀고 국가재정이 건전해지도록 장치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예산심의를 어느 때 보다 철저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 심사를 마치고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F1·하계U대회 정부 지원 시급"

한나라 박재순 최고 촉구



한나라당 박재순(사진) 최고위원은 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F1 대회와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F1 자동차대회는 당 지도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문 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또 광주시가 추진 중인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역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고 설명한 뒤 "행정 일관성 차원으로 보더라도 양 대회는 반드시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해안권발전계획' 수립 본격화

국토연구원, 영광·신안 등 현장 답사

국토연구원이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남지역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연구진 6명은 이날부터 영광 철골 일 반산단단지과 신안 섬 갯벌 프로젝트, 목포 해양복합관광클러스터, 순천만 프로젝트 개발부지, 고흥 우수산업 클러스터 건설예정지 등 도내 해안권 16개 시·군 현장답사에 나선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말 예정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1차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3개팀으로 나눠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 등 3개 시·도가 추진하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부산에서 통영~남해~여수~목포에 이르는 남해안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할 밑그림을 담고 있다.

이번 용역에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3개 시·도 발전연구원과 외국 유명 컨설팅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승인 절차를 밟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청년실업, 나라의 큰 걱정거리"

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

1일 이명박 대통령의 네 번째 라디오연설은 최근 경기침체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 취업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연설을 미국과 남미 순방 귀국인으로 시작한 이 대통령은 "많은 현장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젊은이들을 떠올렸다"며 "패기와 실력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곳에 거침없이 나가서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히

며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의 고통이고, 또한 국민의 고통이기도 하다. 나라의 큰 걱정거리"라며 "실력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역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도전정신 결여가 최근 취업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 전문직, 공직 등 이른바 '편하고 좋은 직장'에 몰리면서 임시직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기현상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생각을 새롭게 해 신발 끈을 조이고 어디든 용기 있게 뛰어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첫 직장이었던 현대건설 취업 일화를 소개하면서 젊은이들에게 투지를 갖고 도전할 것을 거듭 조언했다.

이러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취업대책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일·한 협력위원회 44차 합동총회 참석차 방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등 일본 대표단 24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서로의 깊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주춤거릴 때가 있었다"면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이제는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9급 이론출수반 7급 실용출수반

한빛고시학원

개강 12월 1일

공무원합격 압도적 1위

한짱단과반 9급 야간특설반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약 (062)234-0234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월 1일 개강예정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국비지원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인명량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광주고시학원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해 교세관법검정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건호지방술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합격설명회, 매일 09~19시까지

'09년 시험안내

12월 1일 (주야간반모집)

합격 회원 모집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